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1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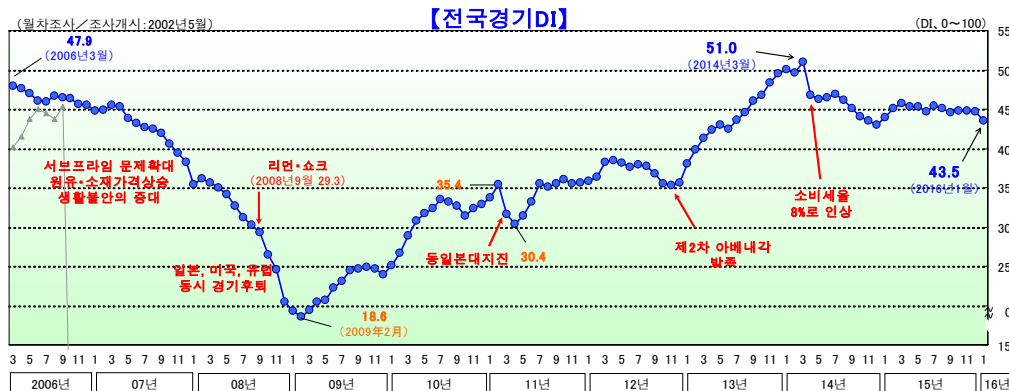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급락, 대한파가 치명타

~1년 5개월만에 10개 지역 모두 악화~

(조사대상 2만3,228사, 유효회답 1만519사, 회답률 45.3%, 조사개시 2002년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43.5가 되어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연초부터 닷케이 평균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감속이나 투자설비의 증가 부진도 겹쳐졌다. 국내경기는 생산활동의 정체에 기상 불안정도 더해져 악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생산이나 소비에 하향 우려가 있어 약세로 추이할 전망이다 가운데, 아베노믹스(Abenomics) 제2탄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의 투입이 요구된다.
- 업계별로는 『건설』 『제조』 『운수·창고』 『서비스』 등 9개 업계가 악화, 『소매』의 1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중국의 경기감속이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정체시켜 기계제조 등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이외에 경자동차의 판매부진은 관련된 부품생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전국적인 감소경향에 더하여 1월 전반까지의 적은 강설량이나 그 이후의 대한파 등 이상기상도 영향을 끼쳐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악화에 기상불안정이 겹쳤던 2014년 8월 이래로 1년 5개월만에 전국 10개 지역이 악화되었으며 그 중 6개 지역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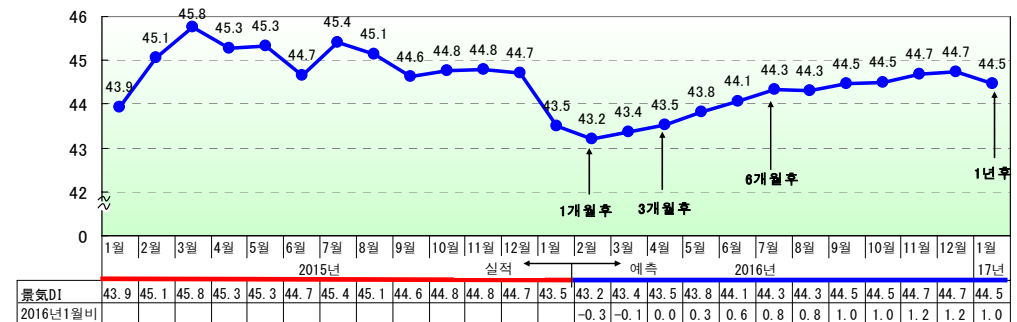
< 2016년 1월의 동향 : 악화되고 있다 >

2016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43.5가 되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경기DI가 1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재료비 등의 코스트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수익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던 2014년 10월(10포인트 감소) 이래 1년 3개월만이다.

1월은 연초부터 닷케이 평균주가가 미국과 상하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아 대폭으로 하락, 전년도 말과 비교하여 일시적으로 3천 엔을 넘어서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월 전반에는 난동(暖冬)의 영향을 받아서 계절상품이나 동계 레저시설이 부진하였던 반면, 후반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대한파가 닥치는 등 기상불안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경자동차의 생산감소에 의하여 부품생산이 악화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감속이나 설비투자의 증가부진 등에 직면한 『제조』가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더욱이 공공공사의 감소는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저하시켜, 지방 경기가 정체되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 경기는 생산활동의 정체에 기상 불안정이 더해져 악화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생산·소비의 약세가 우려 >

향후의 국내경기는 가계수입·지출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업적의 개선에 동반하는 임금상승이나 설비투자의 동향이 열쇠가 된다. 중국의 경제감속이나 원유가격 하락에 의한 자원국 경제의 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외에 기인하는 불안요소가 많다. 또한 작년 여름 이후의 도매·소매로 인한 재고가 쌓여 있어, 재고조정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홋카이도 신칸센의 일부 개통이나 도쿄 올림픽 수요의 본격화는 호재료가 되는 이외에 주택이나 고액내구재 등에서 막바지 수요가 기대된다. 향후의 경기는 생산이나 소비가 하향될 우려가 있어 약세로 추이할 전망이다 가운데, 금융완화나 경기대책, 소비세율 인상의 보류와 같은 아베노믹스(Abenomics) 제2탄을 뒷받침할 정책 패키지의 투입이 요구되겠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악화, 중국의 경기감속에 기상 불안정이 치명다

·『건설』『제조』『운수·창고』『서비스』 등 9개 업계가 악화, 『소매』의 1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중국의 경기감속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약해지는 가운데 1월 전반의 난동과 후반의 한파에 의한 영향이 폭넓은 업종에서 나타났다.

·『건설』(47.9)···전월 대비 1.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에서는 국가와 시 구읍면의 발주건수가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증가하였으나 맨션건설에서는 기초공사의 데이터 위조(改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소경향이 되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의 고정매입가격 인하도 영향을 끼쳐 신규 수주가 감소하였다. 월 전반의 난동으로 인하여 토목공사에서는 제설체제를 포함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조설비의 수요감소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조』(42.2)···동 1.3포인트 감소.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36.4, 동 2.9포인트 감소)는 월 전반의 난동에 의한 영향으로 겨울철 내복·속옷류제도가 악화되었다. 「운송용기계·기구제조」(45.7, 동 0.5포인트 감소)는 경자동차의 생산감소로 인하여 부품생산이 감소된 이외에 설비투자수요의 감소나 중국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도 받아 「기계제조」(46.0, 동 2.6포인트 감소)가 대폭으로 악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종래의 형광등이나 백열등의 실질제조금지의 영향으로 전기조명기구제조나 전구제조에서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기업이 발생하였으며 차재용 전자기기 등의 프린트회로제조나 전자부품제조를 포함하는 「전기기계제조」(43.0, 동 1.9포인트 감소) 등 『제조』는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운수·창고』(43.2)···동 2.1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만성적인 운전수 부족에 의한 기동률의 저하나 트럭의 규제강화에 더하여 공공공사의 감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중국을 겨냥한 화물수출이 감소하여 강재(鋼材)수요도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말연시의 화물이동이 전반적으로 신통치 않다」(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등 폭넓은 업종에서 물류량의 저하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여행관련에서는 해외테러에 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서비스』(48.4)···동 1.2포인트 감소.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의료·복지·보건위생」(39.9, 동 2.3포인트 감소)는 병원 등 의료분야에서 간호보수나 진료보수의 인하와 같은 제도변경에 동반하는 영향을 받았으며 쓰레기 수집운반이나 산업폐기물 처분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가격경쟁의 격화가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유지보수·설비·검사」(44.8, 동 1.6포인트 감소)에서는 자동차 정비관련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 자동차판매기의 감소는 기계수리 등에 영향을 끼쳤다. 연초부터 추가하락에 의한 경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기업의 광고출고가 감소한 「광고관련」(39.2, 동 11포인트 감소) 등 『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전월비	
농·임·수산		41.3	40.0	44.0	43.7	45.0	41.9	42.9	44.7	44.7	44.6	45.2	46.4	43.6	▲ 2.8	
금융		45.1	44.7	48.0	48.1	47.4	49.2	48.1	46.5	46.3	47.3	46.6	46.3	45.3	▲ 1.0	
건설		50.4	50.4	50.8	49.3	48.6	47.7	48.6	48.8	49.1	49.5	49.6	49.3	47.9	▲ 1.4	
부동산		45.1	47.2	48.8	48.8	49.6	49.1	49.8	48.4	48.7	48.7	48.9	48.4	47.1	▲ 1.3	
제조	식품료품·식품제조	37.2	39.8	43.1	42.1	44.3	43.1	43.4	43.0	43.6	44.3	44.5	44.1	44.2	0.1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8	39.7	37.6	40.2	41.7	39.4	39.4	40.2	38.8	39.8	39.4	39.3	36.4	▲ 2.9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3.2	41.9	42.1	40.3	40.9	40.3	41.2	41.2	40.9	40.2	38.9	40.7	38.5	▲ 2.2	
	플라스틱·종이·종이제품제조	34.8	37.3	39.3	39.8	40.0	39.0	39.7	42.0	40.8	41.1	42.4	41.7	40.3	▲ 1.4	
	출판·인쇄	31.8	33.5	34.1	34.6	34.1	33.5	33.7	34.9	34.8	34.8	34.6	34.7	34.0	▲ 0.7	
	화학제품	43.2	44.5	44.6	44.1	44.4	43.9	44.7	45.3	44.4	44.4	44.9	45.4	44.3	▲ 1.1	
	철강·비철금속·광업	44.8	46.8	45.2	43.9	43.0	42.9	43.6	42.8	41.7	41.4	41.8	41.5	41.1	▲ 0.4	
	기계제조	49.6	51.5	52.6	52.5	51.6	51.3	51.9	50.3	47.3	47.9	47.3	48.6	46.0	▲ 2.6	
	전기기계제조	47.3	48.4	49.7	47.7	47.3	47.4	47.4	44.8	45.2	45.2	45.2	44.9	43.0	▲ 1.9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7.4	50.3	50.4	51.1	47.8	49.7	50.9	50.8	48.3	46.3	47.0	46.2	45.7	▲ 0.5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7.9	48.9	49.2	47.8	49.8	49.4	50.4	51.2	47.9	48.6	47.9	46.1	46.2	0.1	
	기타 제조	35.4	38.7	38.7	37.1	40.7	37.8	39.2	37.7	40.0	39.8	40.0	39.6	39.4	▲ 0.2	
	전체		43.0	44.6	45.1	44.4	44.5	44.0	44.6	44.2	43.2	43.3	43.3	43.5	42.2	▲ 1.3
도매	식품료품도매	38.3	39.7	40.6	42.6	42.9	43.0	44.1	42.7	43.6	43.0	43.1	42.6	41.9	▲ 0.7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1.1	32.2	33.3	35.5	37.0	34.8	34.4	34.7	36.5	37.8	34.4	34.4	33.5	▲ 0.9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0	40.5	40.2	38.2	38.7	38.1	39.8	39.7	39.5	41.3	41.5	41.8	40.5	▲ 1.3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3.2	35.1	37.7	37.3	38.1	34.5	37.1	36.5	36.8	36.8	37.4	37.2	38.1	0.9	
	화학도매	38.9	41.2	41.8	42.5	43.0	43.1	43.9	42.6	42.3	42.5	42.8	43.2	40.8	▲ 2.4	
	생활자판도매	39.0	38.5	39.3	39.7	42.3	40.1	35.8	36.0	25.8	29.9	26.7	32.1	25.6	▲ 6.5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3.9	43.5	43.2	41.2	40.3	39.3	40.4	40.3	38.5	38.8	39.4	37.7	36.4	▲ 1.3	
	기계·기구도매	44.8	46.0	47.3	46.7	46.3	45.1	45.6	45.3	43.6	43.6	43.4	43.6	42.6	▲ 1.0	
	기타 도매	37.5	38.5	40.7	40.9	41.8	42.0	42.4	41.4	40.8	41.0	41.1	41.1	39.9	▲ 1.2	
	전체		40.4	41.5	42.5	42.3	42.5	41.7	42.5	41.9	41.2	41.5	41.4	41.4	40.1	▲ 1.3
	소매	식품료품소매	36.8	38.2	39.4	39.3	41.6	42.7	45.0	44.0	44.5	44.6	41.4	43.2	39.9	▲ 3.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0.7	32.3	34.8	38.0	40.2	37.0	38.6	38.7	36.9	40.1	36.8	32.1	34.8	2.7
		의약품·의료장비·의료기기	44.6	45.3	46.0	48.1	48.0	48.6	49.3	48.7	46.7	48.6	50.0	49.4	45.3	▲ 4.1
가구류소매		28.8	33.3	27.8	35.0	40.0	43.3	41.7	41.7	42.9	42.9	42.9	47.2	42.9	▲ 4.3	
가전·정보기기소매		39.3	39.0	43.2	38.4	41.5	40.6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1	
자동차·동·부품소매		37.8	40.7	38.8	36.5	39.9	37.2	38.3	38.7	38.6	39.9	38.2	37.9	40.0	2.1	
전문상품소매		41.4	43.7	42.3	39.4	40.5	38.0	39.9	41.6	40.7	39.2	39.8	38.4	40.4	2.0	
각종상품소매		42.6	41.0	40.6	47.1	49.7	48.1	48.8	49.0	47.3	46.5	47.3	43.8	45.0	1.2	
기타 소매		33.3	36.7	38.9	41.7	36.1	43.3	35.7	44.4	44.4	36.1	38.9	43.3	44.4	1.1	
전체		39.1	40.5	40.5	40.2	42.1	40.7	41.9	42.4	42.2	41.6	40.9	40.2	41.0	0.8	
운수·창고		43.7	44.8	44.9	44.8	44.8	42.6	44.4	44.9	45.1	44.7	45.4	45.3	43.2	▲ 2.1	
서비스		음식점	44.6	45.2	49.2	50.0	49.6	48.2	47.4	51.3	45.3	49.2	46.2	44.4	47.1	2.7
		전기통신	56.3	53.7	48.3	54.2	53.7	50.0	47.0	53.0	59.3	57.6	53.0	51.5	58.3	6.8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0.0	50.0	48.3	55.0	53.7	53.0	50.0	51.9	56.7	55.0	55.0	52.4	▲ 2.6		
	리스·임대	50.9	50.0	49.3	49.6	47.9	47.9	48.7	49.9	48.0	48.0	49.2	49.7	48.1	▲ 1.6	
	호텔·호텔	47.7	49.5	48.6	51.4	53.1	54.2	52.9	59.0	58.3	61.4	59.1	55.4	56.9	1.5	
	모객서비스	34.4	36.7	40.6	38.7	40.2	37.9	37.3	38.0	37.9	38.0	38.0	38.6	39.1	0.5	
	방송	44.4	40.0	45.6	47.9	45.6	46.1	49.1	46.1	41.7	45.1	46.9	47.8	43.8	▲ 4.0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4.6	46.9	47.2	47.8	48.1	47.4	47.6	47.4	46.0	46.1	47.1	46.4	44.8	▲ 1.6	
	광고관련	38.8	39.3	42.1	42.2	41.1	41.0	39.8	40.7	40.8	40.7	40.3	40.3	39.2	▲ 1.1	
	정보서비스	53.5	54.6	56.3	56.3	55.3	55.4	56.4	55.8	55.5	56.0	54.9	54.9	55.2	0.3	
	인재파견·소개	55.7	57.5	56.7	55.5	56.2	56.3	54.4	55.0	54.2	54.7	52.5	53.1	50.9	▲ 2.2	
	전문서비스	50.8	51.4	53.0	51.0	51.7	50.9	52.0	51.4	51.5	49.0	50.3	52.1	49.1	▲ 3.0	
	의료·복지·보건위생	44.7	45.7	45.3	46.1	46.3	43.3	45.3	43.6	42.8	42.3	44.1	42.2	39.9	▲ 2.3	
교육서비스	40.5	40.2	39.5	41.2	41.1	44.4	40.6	44.1	42.1	45.0	50.8	46.7	46.3	▲ 0.4		
기타 서비스	47.4	48.1	47.2	46.1	46.8	49.5	50.9	48.5	49.3	49.2	50.1	49.0	45.9	▲ 3.1		
전체		48.3	49.2	50.3	50.1	49.9	49.7	50.4	50.1	49.6	49.6	49.6	48.4	▲ 1.2		
기타		37.3	41.7	42.0	43.2	40.2	41.9	42.6	40.7	41.4	42.3	41.9	43.8	40.9	▲ 2.9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11.3	10.4	10.3	9.9	7.8	9.0	8.5	8.2	8.4	8.1	8.7	9.4	8.3	▲	
중국진출		45.6	47.4	47.8	48.2	47.9	47.0	47.5	46.9	45.6	45.6	44.8	44.7	43.5	▲ 1.2	
태양광발전		45.7	47.0	48.0	46.0	47.2	44.5	47.8	46.5	45.0	44.7	44.3	46.0	43.1	▲ 2.9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모든 규모에서 악화,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 폭이 커

- 「대기업」이 47.1(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2.5(동 1.3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41.8(동 1.5포인트 감소)이 되었다. 「대기업」은 지방경기정체 등의 영향을 받은 『금융』 등 9개 업계가, 「중소기업」도 겨울철 상품과 강제관련 화물이동의 정체가 영향을 끼친 『운수·창고』 등 9개 업계가 악화. 모든 규모에서 악화되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폭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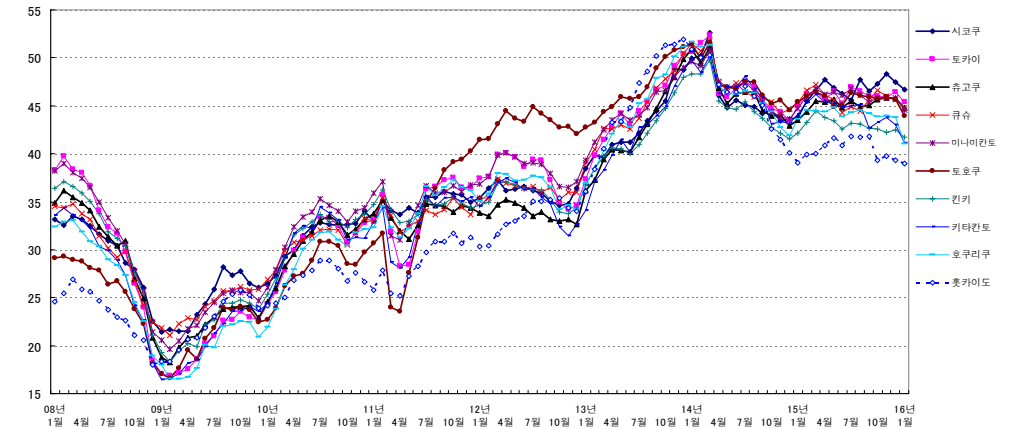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전월비
대기업	47.1	48.0	48.6	48.9	49.2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 0.8
중소기업	43.0	44.2	45.0	44.3	44.3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 1.3
(그 중, 소규모기업)	42.3	43.4	44.3	43.1	43.2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 1.5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1	3.8	3.6	4.6	4.9	4.8	4.3	4.8	4.6	4.7	4.7	4.1	4.6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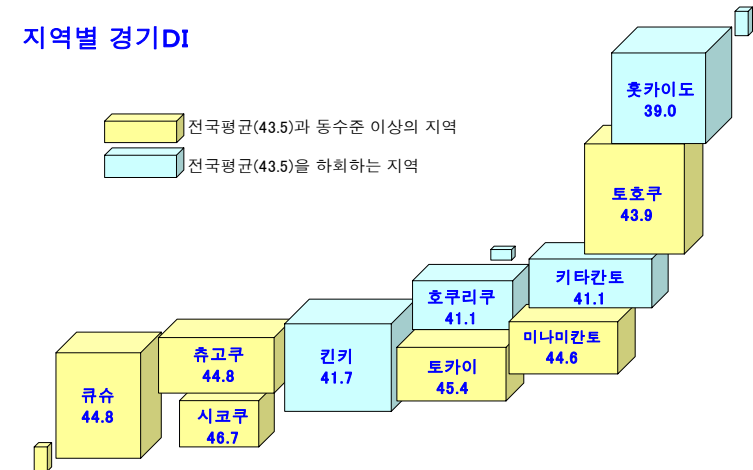
지역별 : 1년 5개월만에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

- 모든 지역이 악화.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된 것은 수출악화에 기상불안정이 겹쳐졌던 2014년 8월 이래 1년 5개월만이다. 공공공사의 전국적인 감소경향과 함께 난동에 동반한 1월 전반까지의 적은 강설량과 그 후의 한파 등 이상기상도 영향을 끼쳐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6개 지역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 「호쿠리쿠」(41.1)···전월 대비 2.7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공공공사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월 전반까지의 적은 강설량으로 제설작업의 가동이 적었던 『건설』은 4.1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도매』는 중국경제감축의 영향을 받은 공작기계 제조사의 생산조정으로 인하여 기계·기구 도매가 크게 악화되어 4.0포인트 하락하였다. 모든 현·모든 규모에서 악화되어 2013년 3월 이래의 최저수준이 되었다.
- 「키타칸토」(41.1)···동 1.9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운수·창고』는 원유가격의 하락이 호재료가 되었지만 일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건설관련 등의 화물이동도 악화되어 5.8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 경기감축에 동반하는 건설기계 등 대형 제조사로부터의 수주감소가 영향을 끼쳐 지역 내 주력산업인 기계제조와 전기기계제조가 각 현에서 크게 감소된 『제조』는 2.3포인트 악화되었다.
- 「홋카이도」(39.0)···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인구감소에 동반하는 일손부족과 공공공사의 대폭적인 감소 등도 있어 『건설』 『운수·창고』 등이 2개월 연속으로 악화, 10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잦은 방문으로 의약품·생활잡화 소매 등 『소매』 외 여관·호텔이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어 악화폭은 10개 지역 중 가장 작았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전월비
홋카이도	39.1	39.9	40.0	40.8	41.6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 0.4
도호쿠	45.4	46.0	46.5	46.0	44.9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 1.7
키타칸토	44.1	45.3	46.2	45.4	45.2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 1.9
미나미칸토	44.7	46.0	46.8	46.2	46.5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 1.2
호쿠리쿠	43.6	44.6	44.4	44.4	44.8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 2.7
토카이	45.0	46.3	46.4	45.6	46.5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 1.0
킨키	42.2	43.2	44.5	43.7	43.4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 0.8
류큐	43.6	44.4	45.5	45.4	45.6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 1.0
시코쿠	43.8	45.5	46.6	47.7	46.9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 0.8
큐슈	45.3	46.6	47.2	46.2	45.6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 0.8
격차	6.3	6.7	7.2	6.9	5.3	5.4	5.1	5.9	4.7	8.0	8.5	8.1	7.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